

여야 '北 도발' 규탄...해법은 이견

與 “한미동맹 토대 강력 응징”...野 “대화 위한 외교 노력 필요”

여야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위협 해소 대응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도발을 핵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강력한 응징을 경고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하며 대화 노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전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을 발사해 제차 ‘핵 위협’을 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은 한·미 연합군을 주축으로

한 자유 진영 국가 연대의 압도적인 반격에 의해 반드시 파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특히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 연합전력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원점 및 지휘부 타격에 이은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의 결속도 중요하다”면서 “하나 된 대한민국은 철통같은 군사 대비 태세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분열 책동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 도발과 위협을 강력 규탄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나날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국민은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안심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큰소리만 치며 북한과 대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대화와 타협이란 선택지는 없다.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를 언제까지 팔짱 끼고 지켜볼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다음달 영장 청구하나

檢,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정치권, 소환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지 반년도 안 돼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만난 형국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논란” 등의 약재를 채 털지 못했다. 당 지지율도 답보하는 상황인 만큼 이 대표로서는 달갑지 않은 타이밍인 셈이다.

최근 이 대표는 대북송금 수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의 회유·압박 내지 ‘언론 플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19일),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21일) 등의 발언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에서도 최근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강압 수사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데다, 이 전 부지사로 변호인을 통해 기존 입장 번복은 사실무근이라는 자필 입장문을 낸 점을 들어 이 전 부지사 면회 등을 통해 검찰을 향한 역공을 베풀고 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청구하면 본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내 자중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검찰이 계산에 넣을 것이라 관측에서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제 선언하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눈초리도 매섭다. 한 비명계 의원은 “또다시 의원들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로 고민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단 만큼,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뉴스



민주당 혁신위 ‘울산시민과의 대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3일 오후 울산시 중구 J아트홀에서 열린 전국 순회 간담회 ‘울산시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으로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전남도당에서 회의를 열고 김화진 전 전남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회는 도당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고영호 현 여수감 당협위원장과 김화진 전 도당위원장 2명을 대상으로 이들 간 경선(모바일

·ARS)을 실시, 김 전 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의 모든 당원들의 결속을 이끌어내 전남이 내년 총선 승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회 윤리특위 27일 ‘김남국 제명’ 논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김남국 “공정성 의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윤리특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 징계안은 국회 내 활동에 대한 의무 위반 사안을 다루는 1소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1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2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소위가 제명을 권고한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면, 이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줄 방침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112명) 의원들이 대체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168명) 의원들의 표심이 김 의원 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건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중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은 특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알려진 가운데 상당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촉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빼고도 거래 총액 10억 원 이상인 의원이 복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개호, 국립기관·신사업 유치 노력 ‘결실’

국립심뇌혈관센터 등 3곳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의 지역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립기관과 신사업 유치 노력이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

23일 이개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총사업비 1001억 원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를 28년까지 장성군에 건립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여년에 걸친 이 의원과 장성군의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성 건립’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어 21일에는 국비 100억 원 규모의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선정됨으로써 대마면 일원에 e모빌리티 콤플

렉스 및 트랙, 체험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영광군 e모빌리티 산업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한 산업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총사업비 196억 원에 이르는 담양군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은 24년 완공을 목표로 9월 중 기공식을 앞두고 있고 총사업비 7619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축산과학원 축산자원 개발부 합평군 이전 사업은 올해 96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기본설계와 토지 및 손실보상 협의가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7년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